

- 이경아. “아시아 선교를 위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 신학대학원, 1995.
- 이철희. “타문화권 복음전도 방법론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 신학대학원, 1994.
- 허성호. “기독교선교에서 본 조상숭배문제 연구.” 선교학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 신학대학원, 1984.

지역교회의 미전도종족 입양 선교

서 원 민
(신대원 3년)

목 차

제1장 서론	5.3. 미전도종족의 위치
1.1. 논문의 동기와 목적	제6장 지역교회의 미전도종족 입양선교
1.2. 논문의 범위 및 방법	6.1. 미전도종족의 입양선교의 필요성
제2장 세계선교의 현황	6.1.1. 변화에 대응하는 선교전략
2.1. 초기선교의 역사	6.1.2. 교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선교
2.2. 근대선교의 역사	6.2. 미전도종족 입양선교
2.3. 현대선교의 역사	6.2.1. 종족입양(Adopt-A-People)이란
2.4. 미전도종족 입양선교에로의 전환의 필요성	6.2.2. 미전도종족입양선교의 목표
24.1. 선교역사를 통해서 본 전환의 필요성	6.3. 지역교회와 미전도종족입양선교
24.2. 선교지의 변화를 통해서 본 전환의 필요성	6.3.1. 지역교회선교 취약점
제3장 미전도종족의 성경적 배경	6.3.2. 왜 지역교회가 종족입양선교운동을 해야하는가?
3.1. 성경의 나타난 종족의 개념	6.4. 미전도종족입양선교의 장점
3.1.1. 구약성경에 나타난 종족의 개념	6.5. 지역교회의 미전도종족 입양선교 전략
3.1.2. 신약성경에 나타난 종족의 개념	6.5.1. 연합사역의 추구
3.2. 종족선교의 성경적 근거	6.5.2. 입양사역을 위한 준비
제4장 미전도 종족의 정의	6.5.3. 지역교회가 입양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
4.1. 미전도종족의 개념의 발전	6.5.4. 지역교회의 미전도종족입양선교 방법
4.2. 종족과 종족집단의 개념	제7장 미전도종족입양선교 활성화를 위한 교회, 선교단체, 선교사의 협력방안
42.1. 종족(People)	7.1.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초교파적 협력방안
42.2. 종족집단(People Group)	7.2. 미전도종족 입양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
4.3. 종족집단의 구분	7.3. 미전도종족 입양활성화를 위한 선교단체의 역할
43.1. 인종언어학적인 종족 (Ethnolinguistic peoples)	7.4. 미전도종족 입양활성화를 위한 선교사의 역할
43.2. 사회학적으로 정의된 종족집단 (Sociologically defined people groups)	
44.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의 개념	
제5장 미전도종족의 위치와 특징	결론
5.1. 미전도종족의 현황	
52. 미전도종족의 특징	

제 1장 서 론

1.1. 논문의 동기와 목적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 지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 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날, 즉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구원 사역은 완전히 성취되어 질 것이다. 이 날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선교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 선교사역의 목적과 동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지만 그 방법은 시대적, 정치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걸어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지만 지금은 차, 비행기, 컴퓨터 등 첨단 장비들을 사용하여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등을 고려할 때 과거와 달리 현재에 가장 맞는 방법을 꾸준히 계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입양 선교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국가 단위 개념으로서 선교지에 파송되어 선교하는 선교사 파송 선교보다 이제는 통신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정보화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난 날의 방법들은 효과적이지 못함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각 국가들은 종족들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일지라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며 생활 습관이 다르다. 이런 국가들을 상대로 선교 할 때는 국가 중심보다는 종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식적으로 선교사 신분으로 선교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합법적신분으로 사역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 직업(기술)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바울이 선교하던 시대

의 만국 통행증은 로마 시민권이었다면, 오늘날의 만국 통행증은 전문 직업(기술)이다.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 입양선교의 또 다른 중요성은 지역 교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대부분 기존 교회들의 선교 방법은 직접적 선교 활동이라기 보다는 간접적인 선교 방법을 취하고 있다. 선교 단체나 이미 다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도움은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와 선교사가 하나되는 일은 극히 드물며 또한 선교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피상적이고 무관심적이다. 이러므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일 또한 게을리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입양선교의 장점은 지역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선교사역에 직접 동참하게 되며, 특별히 평신도들의 전문 직업(기술)을 가지고 구체적인 선교사역에 동참함으로서 생동감 있는 선교활동을 성도들과 함께 전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입양 선교는 성경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성경은 족속에 대한 개념과 함께 족속 복음화를 긍정적인 선교 목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특정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선교의 방법은 21세기 선교의 흐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1세기의 주요한 선교활동의 특징은 제3세계 선교 세력의 등장과 도시 선교, 전문인 선교사 활동 시대의 도래 그리고 입양선교의 대두가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792년 윌리암 캐리(William Carey)에 의해서 인도의 해안선 선교(Coastland Mission)가 선교 사역의 제1기 사역이라고 한다면 제2기 사역은 1865년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에 의해 중국의 내지 선교(Inland Mission)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때까지는 광역적인 나라 중심의 선교

개념이었는데 1955년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과 카메론 타운젠드(Cameron Townsend)에 의해 얻어 중심의 종족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를 선교의 제3기라고 보는 데 특히 1989년에 열린 제2회 로잔(Lausanne)대회 때 랠프 윈터(Ralph D. Winter)박사에 의해 공식적인 입양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¹⁾ 그래서 1995년 한국에서 열린 '95 세계 선교 대회에서 국가별 선교 전략은 “미전도종족 입양 적극 추진”이었다.²⁾

이 대회는 200여 국가에서 4천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미전도종족 복음화 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 할 것을 다짐했다. 이 대회에 참가한 각 분야별 주요 지도자들의 좌담에서 “지금은 지구촌 모든 미전도종족을 찾아 나설 때다”고 결론을 지었다.³⁾

이와같이 입양 선교는 중요하며, 이 일을 위해 전문 직업(기술)을 가진 평신도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서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북위 10도에서 40도의 직사각형의 지역을 ‘10/40 창의적 접근 지역(10/40 Window)’이라 부르는데 이 지역의 복음화의 방법으로서 입양 선교운동의 선교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논문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와 방법은 성경에 나타난 족속 복음화의 이론적 배경을 먼저 살피고 그 단어들의 바른 정의를 내리면서 미전도종족이

무엇인지를 살필것이다. 그리고 미전도종족의 선교의 필요성을 다루고 그방법으로서 입양 운동을 구체적으로 다룰것이다. 그래서 이와같은 방법이 한국교회에 필요함을 설명하고 모든 교회가 이 입양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적인 문헌보다도 각 선교 단체의 회보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 논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을 쓰게 되는 연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과 내용 및 범위를 밝혔고, 제2장에서는 전 세계 선교현황을 살피면서 특별히 선교 역사를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미전도종족의 이론적 배경을 성경에서 살피고 제4장에서는 미전도종족의 정의를 내릴것이다. 제5장에서는 미전도종족이 살고있는 창의적 접근 지역을 살피고 제6장에서는 미전도종족 선교 전략으로서 입양운동을 가장 폭넓게 다룰것이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이 선교 전략의 확산과 홍보을 다루면서 한국교회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결론으로 마치고자 한다.

1) 한국세계선교훈련원, The Bridge, 1995.3-5. p.7.

2) “미전도 종족입양 적극추진”, 크리스챤 신문, 1995년 5월 27일자, p5.

3) “지구촌 모든 종족을 찾아나설 때다”, 크리스챤 신문, 1995년 6월 3일자, p4.

제 2장 세계선교의 현황

2.1 초기 선교의 역사

하나님과 전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에 관계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선교의 역사이다.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는 선교사들이 무엇을 했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셨느냐가 강조되어야 한다. 선교역사는 평탄하게 일정한 스피드로 진행하지 않는다. 선교역사는 갑작스런 출발과 정지, 충격과 방해들에 영향을 받게된다. 때때로 그 진행은 완전히 정지되거나 치명적으로 저지되기도 하며, 또 그때마다 다시 갑작스러운 진보를 보이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마다 자신의 표식을 세워 두셨다. 모든 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방향을 가지고 그의 교회를 뒤따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분만이 위대하시다. 또한 그의 독생자를 통한 복음은 그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⁴⁾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동시에 시작되었다. 선교의 첫시기의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상에서 그 존재와 자연스럽게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었다. 이 시기의 선교는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또 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교적 명령을 매우 가깝게 느꼈고 따라서 그 영향을 자신들의 전 생활에도 여전히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문화적 문제는 신중한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져온 자들과 복음을 받은 자들은 모두 같은 문화권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이때는 정치적 목적들도 선교의 세계에는 첨가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포괄적인 선교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⁵⁾

4) J.H. Bavinck,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전호진 역(서울:성광문화사, 1991), pp.281-286.

5) Ibid, pp.293-294.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후로 황제들은 교회생활에 자주 침범하고 싶어하게 되고 반대로 교회는 국가에 대한 교회의 소명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다. 이렇게해서 서구에는 교황과 황제간에 관계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선교활동은 자발성과 소박성의 어떤것을 상실하고 더 강한 기세로 시대의 문화적, 정치적 문제들에 끌여져 들어갔다. 따라서 중세시대 교회의 선교활동은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을 나타나게 되었다. 즉 다소 문화의 전달과 더 관계되어지게 되었고 강력한 정치적 배경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교활동은 정치적인 정복과 서구 문화의 전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선교활동의 최종목표는 교회의 일부분이 됨은 물론 위대한 기독교 제국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었다.⁶⁾

종교개혁의 교회들내에서도 선교적 소명은 여러 면에서 동일한 견지에 의하여 통제되었다. 여기서도 선교활동은 식민지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었다. 따라서 선교활동의 실제적 측면에서는 선교란 여전히 정치적 세력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었다.⁷⁾

16, 17세기에 걸쳐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생존에 전력을 쏟아야만 했다. 그리하여 스페인과 포루투갈이 주도하였던 바 역 종교개혁 운동의 거대한 선교 활동에 비견할만한 프로테스탄트 선교의 움직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으로 생성된 교파들 가운데는 재세례파가 그래도 선교적 사명을 가장 잘 이해하였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이러한 소명감은 그 후 18세기에 들어서서 주로 대륙의 경건주의자들 특히 할례의 루터교도와 모라비안들에 의하여 계승되었다.⁸⁾

6) Ibid, p.298.

7) Ibid, pp.298-299.

8) James Hastings Nichols, History of Christianity, 서영일 역(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p.341.

기독교 역사가 1700년이 지난 후, 교회 일부에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구원과 중생은 교회안에서 올바른 위치를 되찾아갔다. 그리고 성경은 대중들이 읽을 수 있을 만큼 수직으로도 많았고, 또한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교기구들도 잘 조직되었다. 그러자 대서양 연안 양쪽에서는 18세기 전체를 통하여 지속되었던 위대한 영적 각성 시대가 찾아왔다. 요한 웨슬리, 조지 퀴필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영도하에 수천 명의 새로운 회심자들이 모여들어 기도하게 되면서 거대한 기도의 물줄기가 솟기 시작했다. 이것은 연합된 기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이었다. 18세기 후반의 선교 개척자들은 바로 이 영적 각성운동이 낳은 자녀들이었다.

1780년대에 영국의 작은 상업도시 캐터링에 기도의 협주곡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인도하는 빛은 구두 제조공이자 엄격한 침례교 목사인 윌리암 케리(William Carey)였는데, 그의 유일한 은사는(그가 말하기를) ‘끈기있게’ 행하는 능력이었다. 케리는 선교에 대한 자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행동으로 계획을 추진해 갔다. 그는 성직자 친목회에서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 계속 안건으로 내놓은 불타는 청년이었다. 그러나 다른 성직자들은 선교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1792년 5월 성직자 친목회에서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다. 개회 예배 때 케리는 이사야 54장에서 지금은 신화처럼 된 유명한 설교를 외쳤다. 주제는 ‘해외선교’였으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외침으로 끝을 맺었다.“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Expect great things from God !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 그 후 케리 자신은 침례교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 1792년에 캘커타 북부에 있는 세람포어를 향해 항해해 갔다.

케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결심으로 인도를 향하여 항해해 갔던 그 같은 시대에, 젊은 나폴레옹은 프랑스 군대에서 계급이 계속 올라가

고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사이의 짧은 25년 동안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약이 꽃을 피웠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상상력은 불타올랐으며, 이 때에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선교사 파송 단체들이 영국, 미국과 유럽 대륙에 창설되었다. 마침내 꿈을 가진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시대는 끝이 나고 교회는 위로부터의 부름에 깨어나게 되었다.⁹⁾

그 후 이것을 영국인들은 자기들의 기독교를 식민지들, 특히 북아메리카에 이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속에서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프로테스탄트는 주로 북서 유럽 주민들의 종교로만 재한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 외의 유럽지방과 유럽 외 지역에서는 겨우 수백만의 신도들이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22. 근대 선교의 역사

산업 혁명 이후 서구의 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활력의 분출구로서 제국주의적 침략의 불길이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리고 문명의 혜택을 베풀기 위하여 지배되어야만 한다는 이론이 식민주의적 침략 세력과 서구 선교세력의 만남과 유착을 이루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선교의 박차를 가한 시대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나폴레옹 패전과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사이의 백 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선교사들은 에스키모와 피그미족, 중국의 만다린족과 남미의 부족들, 조상 숭배자들과 식인종들 속에서 일했다. 기독교는 거대하고도 기적적인 움직임으로 세상에 흩어져 그 씨를 어디에나 뿌렸다.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1807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도리슨

9) Glenn Myers, The World Christian Starter Kit, 백인숙 역(서울:죠이선교회,1991), pp.31-34.

(Robert Morrison)은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엄한 노스엄벌랜드 장로교인으로 중국 본토에 도착했다. 그리고 또한 최초의 미국 해외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은 1813년에 베마에 도착한 후 그는 35년 이상을 거의 휴가 없이 일했다. 그는 베마 언어와 문자를 독파하여 베마어 성경을 번역하고 개정하였으며, 랭군(수도)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규적으로 온 힘을 기울려 설교했다. 그는 5년이 지나서야 한 명의 개종자를 보았고, 베마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평생 동안 보지 못했다.

이 시대의 선교는 식민지 통치자와 현지 지도자들과는 끝없는 분규가 있었고, 모든 선교 현장에서는 실험이 시도되었고, 자식이 쌓여 갔다. 그리고 열대 풍토병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전세계에서 선교사들은 복잡하고 어두운 세상에 더 좋은 날이 도래하기를 희망하며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19세기 개척자들의 경탄할만한 열정은 식지 않았으며, 유럽과 북미를 떠나는 선교사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1857-60년 사이의 영적 대각성의 부흥은 전세계에 걸친 열띤 선교 사역을 더욱 부채질하였다.¹⁰⁾

19세기 말에 이르러 복음은 말 그대로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다. 그 이전 어느 시대에도 이같은 길이의 시간 동안에 기독교나 그 어떤 종교도 19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최초로 이토록 넓은 지역을 폐뚫은 적은 없었다. 라토렛은 19세기를 “위대한 세기”(The Great Century)라고 불렀던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¹¹⁾

다른 한편으로 이 시대의 선교운동은 프랑스 혁명 당시 영어 사용 복음주의자들에 의한 선교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세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상의 확산을 이루어 내었다. 또한 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10) Ibid, pp.37-40.

11) Hope 편, 창의적 접근지역선교(서울:전문인 협력기구,1994), p.5.

하고 있었던 이러한 움직임을 신생 미국이 바로 이어 받아 대륙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에게까지도 새로운 자극을 주고 있었다. 비록 19세기에는 그 인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의 면에서 영국이 이러한 노력의 선봉에서 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미국이 프로테스탄트 선교의 앞장을 서게 되었다.

이러한 선교 활동이 크게 일어나게 된 요인은 유럽의 열강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그들의 식민지 세력을 확장하는 국가 세력의 팽창의 시기였으며, 과학적인 자원개발과 탐험술의 개발로 타문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이슬람의 쇠퇴로 인해 자연스럽게 프로테스탄트 선교가 확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²⁾

그러나 19세기 100년은 서구 세계가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그들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확대해 나간 시대였다. 제국주의의 자민족 이익을 위한 배인 식민 정책이 번져가고 있었다.

서구인들은 유럽의 경제 침략을 거부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항 세력을 군사적으로 억압하면서 기독교는 19세기 프로테스탄트 선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기독교 선교의 순수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불행한 것이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자원을 수탈하면서 그리고 억압과 군사적 강압으로 서구 제국주의적 식민 정책을 강행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사태는 오랫동안 참혹하게 계속되었다. 인종적·민족적 대립밑에서의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선교의 정당성을 찾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서구인들은 자국 정부의 식민지 쟁탈전과 원주민의 노동력과 자원 착취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선교의 기틀을 닦아 갈 수 밖에 없었다.

19세기 유럽 제국주의의 가장 잔인한 침략이 있었던 대륙은 아프리카

12) Nichols, op. cit., pp.341-343.

였다. 프랑스는 1830년에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를, 영국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장악하여 인도와 극동에의 진출 기지로 삼았다.

서구 제국주의가 인도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끼친 영향, 라틴 아메리카에 끼친 영향등은 근대 서구 선교의 동기의 순수성과 방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이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¹³⁾

물론 선교사들 대부분의 중심적 동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코자 하시는 영혼들을 위한 열정이었으며 가능한 지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이들에게 접촉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서구 선교가 이러한 자국의 제국주의적 침략 세력에 유착 야합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 주거나 그러한 부끄러운 역사를 자인하고 참회와 거듭 태어나는 길을 선택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2000년대의 선교의 세력으로 남아 제3세계의 새로운 선교 세력과 동역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될 수는 없을 것이다.

2.3. 현대 선교의 역사

오늘날에 있어서 서구 기독교는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서구 체제하의 정치 권력은 선교 정책을 식민지 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교가 마땅히 그 땅의 종족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교정책이 효과적 지배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수행되어야만 하도록 식민정책이 강요했기 때문이다. 어쨌든지 식민지 문화와 결탁할 수 밖에 없었던 서구 선교는 1930년대 이후 그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925년 스톡홀름과 1937년의 옥스포드와 다음 해의 우트렐에 이르는 13년 동안 서구 기독교는 세계 속에서 자기 자리 찾기에 급급하였다. 그

13) 조동진, 민족과 종교 (서울: 도서출판 별, 1991), pp.93-94.

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암스텔르담에 모인 서구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한 제1회 세계 기독교 협의회는 서구 선교의 정치적, 경제적 과오와 허물을 고백하고 “서구 선교 철수론(Moratorium Theory)”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1950년대의 “서구 선교 불명예론(Disgrace Theory of Western Missionaries)”이 전개되는 것이다.¹⁴⁾

1961년 뉴델리에서의 국제선교협의회(IMC)의 소멸은 사실상 서구 선교가 종말을 예고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1948년 암스텔르담 대회 이후 12년 비서구 세계의 교회들은 더 이상 종전 이전의 서구 의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시아 대부분의 민족들은 이미 40년 후반에 독립을 선언하고 자민족 중심의 국가 형태를 완성하였다.

전후 신생 독립 국가들의 집권자들과 민중 지도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가 외래 종교의 모습으로 민중앞에 나설 수 없게 되었다. 민족과 문화 단위의 교회로의 도래를 더욱 앞당긴 것은 분명히 1960년 뉴델리에서의 국제선교협의 회의 해산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태어난 아시아의 ‘선교의 신생아들’은 1970년대의 중반에 접어들면서 성숙해 가고 있었다. 즉 70년대의 10년은 세계 선교 세력의 주역이 유럽과 아메리카로부터 태평양을 건너 광대한 아시아 대륙과 섬들로 옮겨지는 엄청난 전환기적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⁶⁾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3세계 선교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남아시아에 있어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두나라가 선두에 나서고 있었고,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 지역

14) Ibid, pp.117-118.

15) Ibid, pp.299-300.

16) Ibid, p.328.

선교의 범주를 넘어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뻗어가면서 사실상 선교사의 질(Qualification)과 선교 재정의 크기(Quantity)에 있어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수준에 바짝 따라 붙고 있었다.¹⁷⁾

세계선교의 추세는 점차적으로 2/3 세계(비서구) 선교사들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2천년을 기점으로 하여 서구 선교사 시대가 비서구 선교사들의 시대로 전환될 것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르러 제3세계의 “신생”(Young) 교회들이 국내와 해외에서의 선교사역에 대한 책임을 떠맡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15,250명의 유색인종 선교사들이 타문화권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것은 의심할 나위없이 20세기 선교 활동의 가장 감격스러운 발전들이다.¹⁸⁾

2.4. 미전도 종족 입양선교에로의 전환의 필요성

2.4.1. 선교역사를 통해서 본 전환의 필요성

미국선교센타의 랄프 원터(Lalph D. Winter)박사는 세계선교의 3시대를 말한 바 있다. 첫 시대는 윌리암 캐리가 1792년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면서 시작된 해안 선교운동 시대이다. 이에 대한 관심 때문에 1806년 메시츄세츠의 윌리암스 대학에서 전초더미 아래에서 선교를 놓고 기도 하던 학생들에 의해 또 다른 해안선교운동이 시작되었다.

1864년에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을 떠나 중국으로 가서 중국내지선교회를 시작했다. 이후로 다른 내지 선교활동들이 뒤따랐다. 이 두번째 시기를 내륙선교시대라고 부른다. 이 때는 영국 최고의 대학에서 유명한

17) Ibid, p.330.

18) 헤버트 케인, 세계선교역사, 신서균, 이영주 역 (서울:기독교 문서선교회, 1993), p.151.

캠브리지의 7인이 해외에서 사역하고자 헌신하였고, 다른 대학 캠퍼스들을 방문하여 다른 학생들이 동참하도록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세번째 시대는 1934년 윌리암 카메론 타운젠드가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를 시작하면서 시작된 미전도종족선교운동시대이다. 타운젠드는 성경이 그들이 마음으로 이해할 언어로 번역되어야 할 종족들을 목표로 정했다. 이와같이 시대별로 선교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은 미전도종족 선교의 시대이다.¹⁹⁾

종교개혁 이후 선교적 관심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구원에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인은 언제나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보아졌고, 자연히 선교적 목표도 이 개인들이 속해있는 국가를 단위로 생각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특별히 식민 통치시대의 영토를 주축으로 정치적인 경제를 강조하는 사조속에서 더욱 굳어진 것이다.

1974년 스위스의 로잔대회 이후, 개인을 단순히 정치적인 집단인 국가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혈연, 문화, 언어 등의 비정치적인 요소로 구분되는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고 이런 관점에서 선교적인 접근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는데, 이것은 선교역사상 대단한 혁명적인 착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스위스 로잔대회 이후 미전도족속(Unreached People)에 대하여 오랜 논쟁이 있어왔다. 이러한 논쟁은 주로 미전도족속에 대한 선교적인 목표가 각각 다른 나머지 그 개념 또한 다르게 정립되어 이 문제에 대한 선교적인 시각의 차이를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1982년 로잔위원회 후원으로 시카고에서 열렸던 40명의 선교학자들의 모임에서 어느 정도 극복되고 미전도족속이 무엇이냐 하는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후 이 합의된 개념을 가지고 미전도족속의 숫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면서 결충을 시도하

19) 선교한국 96 조직위원회, 청년 학생 선교저널 (서울:원일인쇄, 제8호), p.4

게 되었는데, 1989년 로잔 마닐라대회 이후 랄프 원터, 패트릭 존스톤(Patrick Johnstone), 데이빗 헤셀그레이브(David Hesselgrave) 등의 선교지도자들이 지구상에는 현재 확인된 바로는 12,000개의 족속이 있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종족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복음화 대책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²⁰⁾

2.4.2. 선교지의 변화를 통해서 본 전환의 필요성

세계 흐름의 변화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믿는자들이 빠르게 대처 하지 않으면 하나님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일에 게으른 종이 되어버리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던 소련의 붕괴는 많은 소수민족주의가 나오게 되었고 크고 작은 민족들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대국들을 상대하고 있다. 구 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는 민족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CIS 국가들은 그동안 소련연방이라는 것에 가리워져 왔던 종족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높여 국가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의 전쟁은 국가간의 전쟁이 아니라 민족간의 분쟁의 형태를 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자신들의 종족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21세기 선교는 ‘국가’를 복음화한다는 개념에서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가야만 한다. 현재 미복음화된 지역은 하나님의 정치적 국가안에도 적어도 10개이상의 종족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선교의 개념은 정치적인 국가의 단위에서 종족의 단위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도에는 2,000여개의 카스트가 존재하여 서로 다른 양상의 문화, 언어를 갖고 인도라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그곳에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인도를 위한 선교사가 아니라 인도 북부의 어느 종족을 위한 선교사가 되야 하

20) 예수전도단, 열방 (서울:사단법인 예수전도단, 창간호, 1992), p.6.

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만 해도 330종족이 모여 하나의 정치적인 국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또한 쿠르드 종족은 2,000만 이상이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는 없다.

선교지의 변화는 선교전략의 변화를 가져야만이 새로운 문을 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선교는 하나님의 정치적인 국가가 아닌 자신들 나름대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종족을 대상으로 해야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²¹⁾

현대 선교의 역사적 흐름을 날카로운 필치로 써 낸 선교 역사가인 라토랫은 20세기 초반까지의 선교를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이제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선 족속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19세기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한 개인을 가족, 마을, 부족으로부터 분리시켰기 때문에 이들은 뿌리를 잊거나 잘못 적용하여 고통 받는 수난을 겪었다. 물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한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부분 한 그룹이 변화하는 것은 그룹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전 가족, 부족이나 카스트가 전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의 신앙이 힘을 얻게 되고 전 사회가 쉽게 변화한다.”²²⁾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인 맥가브란은 인도 땅에서 종족 집단 선교 경험을 책자화하였고 이것이 1955년에 간행된 “하나님의 선교전략”이다. 여기서 그는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써 동질집단의 원리(Homogeneous Unit Principle)를 제기하였다. 이보다 먼저 카메룬 타운 젠드는 과테말라의 선교사로 활동 중 그 곳 사람들의 공용어인 스페인

21) AAP, 선교정탐훈련 표준강의안 (서울:계명인쇄, 1996), p.16-1.

22) Ibid., p.1-1.

어를 통해 접근하기가 어려운 집단을 발견, 언어가 선교의 새로운 장벽임을 느꼈다. 한 나라에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 집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1930년도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이런 종족 집단별 접근 방법이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오다가 이 개념은 랄프 윈터에 의해 집대성 되었다.²³⁾

1980년 에딘버러대회에 참석하고 지난 15년의 현대 선교의 흐름을 지켜본 선교 신학자 전호진 박사는 “현대 선교는 한 마디로, 미전도종족 선교”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지역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지난 10년간 놀라운 성장과 특별히 선교에 대해 힘을 들여온 한국교회가 2000년대를 앞두고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본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과업’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변화하는 흐름에 맞추어 ‘종족’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미전도종족 선교와 이것을 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미전도종족 입양선교운동이 선교의 전환기에 있어서 효과적인 선교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전도종족 선교에 대한 이해 및 성경적 기초를 찾아 본다면 현대 선교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 3장 미전도종족의 성경적 배경

미전도종족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과연 미전도종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역의 목표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정의를 내릴

23) Ibid.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 문제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되어 남아있는 선교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집단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촌 복음화 전략은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누구에게, 어떻게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원하는지에 대한 기록과 상응하는지를 검토해 보기 위해 성경의 조명을 통과해야 한다.

3.1. 성경에 나타난 종족의 개념

영어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 ‘민족들’, ‘족속들’, ‘나라들’ 및 ‘백성들’ 등과 같은 유사한 용어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대체로 몇몇 히브리어 낱말과 헬라어 낱말의 복수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용어가 ‘민족들’이다. 이 말이 KJV에는 478번, RSV에는 그 이상 사용되고 있다. ‘백성’(People)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백성을 가리키기 위해 흔히 단수로 사용되고 있다.

구속사로서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음을” 거듭 선언하고 있다(신 7: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고 말씀하셨다.²⁴⁾

그리하여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각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린양이 피로 산(계 5:9)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계 7:9).²⁵⁾

24) 성서 백과사전 제2권, 정인찬 편수 (서울:기독교 지혜사, 1979), p.925.

25) 기독교 대 백과사전 제6권, 한영제 편수 (서울:기독교 교문사, 1984), p.953.

3.1.1. 구약성경에 나타난 종족의 개념

창세기의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하신 일, 인간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 그후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소외되는 타락의 역사가 기록되는데 이 역사는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정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시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흩어지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궁휼을 베푸셔서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다. 여기서 처음으로 단일 족속이었던 인간들이 여러 족속으로 나누어 진다.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족속의 개념(영어성경에는 족속이 peoples, nations, tribes 등으로 사용되며 한글성경에는 족속, 민족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이 사용되고 있다.²⁶⁾

구약성경에서는 거룩한 백성을 말할 때는 ‘암(am)’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방족속을 말할 때는 ‘고임(goi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선명한 구분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축복하고자 하셨다.(창11:6)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 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로서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대하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하나님의 종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다. 이러한 내용은 구약성경의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일관된 신학의 흐름이다.²⁷⁾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선교적인 사명에 대한 중요한 구절들은 아래와 같다. 출 19:4-6, 민14:21, 신28:10, 왕하6:33, 시67,96,105, 사49:6,56:6-8, 렘12:14-17,겔2:11, 말1:11등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구약

을 살펴 보면 이스라엘이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역에 실패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누렸다. 랄프 원터 박사에 의하면 “구약에 있는 가장 큰 스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거부한 채 하나님께 복만 받으려고 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²⁸⁾

3.1.2. 신약성경에 나타난 종족의 개념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별되는 백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가 하면 신약성경에서 종족에 해당하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는 ‘나라’, ‘이방’, ‘족속’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 ‘에쓰노스(Ethnos)’라는 단어이다. 이것은 습관, 풍습 및 그 밖에 구별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결합된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오는 문맥의 40% 정도에서 이것은 유대나 그리스도인들에 대조되는 이방인들, 곧 이방 나라들을 가리킨다고 한다. 그러나 마태복음 28:19이나 누가복음 24:47 등의 구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함께 가리키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바로 이 ethne을 복음화하라는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예수님의 위대한 감람산 설교(마24-25장)의 서두에 근접해 있는데 이 장들에서 그는 이 시대의 종말에 앞서 일어나 그의 재림에 완성될 사건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 구절은 교회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종족들에 대해 열려 있다는 예수님의 강조이다.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그리스어인 타 ethne(ta ethne)를 ‘국가들’ 이란 용어로 번역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번역이

26) 김종현, “미전도족속은 누구인가?”, 미션월드, 1991년 10월호, p.18.

27) 예수전도단, op. cit., p.7.

28) 김종현, op. cit., p.18.

긴 하나 아마도 최상은 아닐 것 같다. ‘국가들’이란 용어는 우리로 하여금 세계에 산재해 있는 인위적 정치 집단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에쓰네’라는 단어는 주로 정치적인 영향력과 무관한 ‘종족’ 혹은 ‘종족 집단’을 구성하는 인종적, 문화적 요소들에 중점을 둔다. 예를들면,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누가는 ‘사마리아 종족(ethne)’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사마리아인들은 150년 동안 독립된 정치 공동체인 ‘국가’로 존재해 오지 않았기에 ‘종족’이라는 용어는 그들을 인종적 공동체로 언급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타 에쓰네를 국가라 번역하지 않고 ‘종족들’이라 번역함은, 신학적인 것에 그 주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종족’(the families 혹은 nations)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여기서 ‘종족’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쓰파(mispahot)이며 이는 종족 혹은 인종적, 민족적 그룹의 한 단위를 의미한다.(참조 창10:5).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세계의 모든 종족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점은, 바울이 창 12:3을 갈 3:8에서 인용함에 있어 히브리어인 ‘미쓰파’를 ‘타 에쓰네’로 쓴 이유를 설명한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인종적인, 문화적인 그룹이 복을 받게 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²⁹⁾

그러므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8-20)와 요한 계시록 5:9, 7:9의 말씀처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 지리적인 의미인 국가에 대한 언급은 없고 족속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심판을 통해 흘으신 여러 족속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29) 부르스 K. 캠프, *효과적인 미전도종족 선교*,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번역, (서울: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1995), p10-11.

언으로 주님앞에 서게 된다.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3.2. 종족 선교의 성경적 근거

종족 선교의 원리가 성경적 타당성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교회의 사명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종족을 복음화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종족이 정확하게 오늘날의 사회적인 이론 그대로 종족 집단을 가르키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다만 문맥상 복음이 보편적으로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18-20절의 주님의 지상명령에는 “모든”을 강조하는 복음전파의 보편성과 종족이라는 구체적인 집단의 단위를 제시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러면 왜 이 ‘종족들’과 ‘국가들’ 사이의 구별이 선교 사역을 위해 중요한가? 나이제리아의 사례가 그 구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나이제리아에는 300개 이상의 ‘부족’과 ‘종족’들이 존재한다. 나이제리아 국가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나이제리아의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란 것은 생기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는 집단이다(예: 소련, 유고슬라비아). 그런데 ‘종족 집단’은 변화하는 정치 공동체를 일반적으로 초월하여 지속되는 것들이다(예: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내에 있는 다수의 민족그룹들). 명백하게도 예수께서 그의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는 것은 집단의 지속성이 있는 수백개의 종족 집단이다.³⁰⁾

최근 미국 신학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성경

30) Ibid.

주석들은 족속이란 단어의 신학적, 언어적 해석에 비교적 무관심하고 원론적인 면에서 선교의 대사명만을 강조하여 왔다. 예를 들면 John Piper는 그의 저서 'Let the Nations Be Glad'에서 '에쓰네'를 다음과 같이 요약 한다.

1. 단수로는 이방인 개인이 아닌 인종그룹 혹은 민족.
2. 복수 에쓰네스는 이방 개인 혹은 인종 그룹이나 문맥상으로는 양자.
3. '온 족속'이란 용어는 신약에서만 18회 언급, 1회만 이방 개인, 9회는 인종그룹, 8회는 모호하다.
4. 헬라어 구약에서 '온 족속'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나라.
5. 구약의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창 12:3)는 인종이다.
6. 신약의 선교는 구약의 연속이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권면, 약속, 기도, 구원의 계획 등에서
7. 계시록 15장 11절, 5장 9절 등은 인종과 부족을 언급한다.

John Piper는 구약과 신약에서 'nations'에 관련된 수 많은 구절들에 근거하여 일종의 '민족신학'(Nations theology)을 발전시킨다. 그는 구약의 이방이나 나라 혹은 열국들을 인종 단위의 사람으로 해석하면서 인종 단위의 선교가 성경적이라고 강조하며 신약에서 사도바울이나 사도요한도 인종 단위의 차원에서 선교를 다루었다고 역설한다. 사도바울의 인종 단위의 선교적 근거는 로마서 15:8, 9, 12 등이며, 요한 서신은 계시록 5:9, 7:9, 14:6-7, 15:4 등이다.

과연 성경의 족속은 개인인가? 혹은 인종 단위인가? 이에 대한 최근의 해석은 인종 단위로 기울어져 미전도 종족을 성경적으로 정당화 한다. 그러나 키텔의 신약신학사전에서는 헬라어 족속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한다.

1. 에쓰노스는 mass or host, multitude bound by the same manners, customs or other distinctive features. 그러나 짐승에도 무리라는 뜻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2. 신약에서 64회는 특징이 없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모든 나라를 의미한다.
3.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를 의미한다.
4. 유대인이나 기독교 신자와는 구별되는 이방인을 의미한다.
5. 구원역사에서 종교적, 윤리적 의미에서 이방인 살전 4:5, 렘10:25(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이상에서 볼 때 성경에 언급된 '족속'을 모두 단위인종이라고 해석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 역사와 경험 및 현실적 상황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의 타당성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미전도 종족을 집단으로 동시에 기독교화 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아니하며 집단 개종의 문제점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³¹⁾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전하는 동기는 마태복음 24:14절의 "그제야 끝이 오리니"에 주어져 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지상에 완성시키기 위해 오실 것인가?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며 또한 그것에 연연해서도 안된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고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동기가 바로 그의 재림이라는 점이다. 교회가 세계의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칠 때에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분은 곧 오실까? 그 분은 곧 오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세계의 모든 종족들에게(All the Peoples Group) 복음을 전하라는 그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그 분은 곧 오실 것이다.³²⁾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대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24:14)

31) 전호진, 아시아 기독교와 선교전략 (서울:영문도서출판, 1995), p.43.

32) Walt Russel, "예수님의 재림 전에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AAP 홍보자료, 1995년.

제 4장 미전도 종족의 정의

한국인들은 족속이라는 개념에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 서구인들도 이 개념을 최근에 들어서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많은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에 기독교인이 얼마이고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사역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 28:19에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족 혹은 종족 집단을 구성하는 인종적, 문화적 요소들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전도 족속은 영어의 ‘unreached people’를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unreached’라는 개념은 사실 미전도라는 ‘unevangelized’의 개념과는 다르다. 즉 아직 복음이 문자 그대로 ‘unreached’ ‘닿지 않은 곳’이라는 용어이다. 아직 한국말로 이 언어에 대한 정확한 용어가 없으므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미전도 족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정확한 용어의 채택이 요구된다.

4.1. 미전도 족속의 개념의 발전

족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30년대 초창기의 일이다. 특히 족속의 개념을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두 학자는 카메룬 타운센드와 도널드 맥가브란이다. 학생자원 운동에 영향을 받은 타운센드는 과테말라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스페인어를 아는 두 선교사들이 스페인어를 모르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타운센드는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해 1935년에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단체를 설립한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선교를 해야 한다는 그의 선교적 공헌은 각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맥가브란 교수는 그의 저서인 “하나님의 다리”(1955)에서 ‘동질단위의

원리(homogeneous unit principle)’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이 원리는 한 그룹 안에 침투하는 것을 중시한다. 일단 침투를 하게 되면 이제 그룹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동질성을 상실하지 않고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비서구 사회의 그리스도인들 중 3/4가 이와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1972년에 랄프 원터 박사는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에 ‘도표로 본 남은 과제’라는 글을 게재한다. 원터 박사는 이 글에서 족속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족속 무지(People Blindness)에 대해 역설했다. 그리고 MARC(Missions Advanced Research and Communications Center, 1966년에 World Vision과 Fuller 신학교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선교연구소 현재는 World Vision 산하의 기구가 되었다.)는 로잔 대회를 위해 ‘미전도 족속 명부’라는 조사 자료집을 냈다. 그리고 원터 박사 지도하에 에드 펜타코스트(현 달拉斯 신학교의 교수)에 의해 쓰여진 석사 논문이 미전도 족속 개념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로잔 대회에서 족속에 대한 개념이 강조되기는 했지만 아직 미전도 족속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지 않았다. MARC의 연구 보고서에 적힌 미전도 족속은 ‘인구의 20% 이하가 기독교인이거나 그 그룹안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알려진 교회가 없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후 원터 박사는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에 ‘숨겨진 족속’(Hidden People)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이 개념은 ‘1차적인 유사성인 언어, 문화, 사회적 동질성으로 인해 E-1(E-1 복음전파는 같은 문화권 내에서 언어, 문화, 사회적 장벽을 겪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전파이다.)복음전파 방식으로는 선교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숨겨진 족속이라 한다.’고 정의 했다. 결국 MARC의 연구가 인구의 20%를 미전도 족속 구분의 기준점으로 삼았다면 원터 박사는 교회의 존재 여부를 미전도

족속의 구분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혼돈은 샘 윌슨(당시 MARC의 책임자), 에드 데이턴(MARC의 설립자)과 함께 MARC에서 일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되었다. 결국 다음해에 열린 전략 위원회에서는 교회의 존재여부가 미전도 족속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확인되었다. 차츰 통일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선교계에 퍼졌고 1981년 말경에 에드 데이튼은 웨이드 코건(당시 EFMA의 총재)과 웨렌 웨스터(Conservative Baptist Foreign Mission Society의 총재)를 초청하여 회의를 가질것을 제안했다. 이 전략회의는 서구 선교계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이 대회의 유일한 목적은 세계에 있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대회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20%의 기준을 포기하고 교회의 존재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한 것이다. 그 내용은 “족속:복음을 전하면서 이해나 수용의 장애를 겪지 않고 교회 개척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의 그룹”, “미전도 족속: 자신의 그룹을 복음화할 수 있는 토착된 교회가 없는 그룹”이다.

이 대회를 통해 로잔 대회에서 사용된 족속 개념과 에딘버러 대회서 사용된 숨겨진 족속의 개념이 통합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교단체에서는 이 개념을 나름대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³³⁾

4.2종족과 종족 집단의 개념

4.2.1.종족(People)

인종언어학적인 정의로서 그들 스스로 공동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있

33) 김종현, op. cit., p.18-21.

는 개인들의 집단으로 대단히 큰 인종·언어학적인 집단이다. 복음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집단내에서는 교회설립운동이 이해나 수용의 장벽을 부딪히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현재 세계선교계에서 통용하고 있는 종족리스트는 언어, 인종, 그리고 소속국가(지리적 위치)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21세기 운동과 1995년 세계선교 대회에서 채택된 개념이다. 이 입장을 취하는 학자는 패트릭 존스톤과 갤럽 잭슨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전세계의 종족은 약 11,000개이고 그 중 미전도 종족은 2,000개(데이빗 바렛) 혹은 4,000개(패트릭 존스톤)이고 중국의 미전도 종족은 약 150개이다.³⁴⁾

4.2.2.종족 집단(People Group)

사회학적 정의로서 언어, 종교, 인종, 주거, 직업, 계급, 혹은 카스트 상황등이나 이것들이 종합된 그 어떤 것을 공유함으로써 공통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 된 상당히 큰 집단이다. 복음화의 관점에서는 이해와 수용의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는 집단이다. 이것은 1982년 종족입양협의회에서 채택되었고 이것을 지지하는 학자는 랄프 원터와 데이빗 바렛 그리고 잣립의 입장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전세계의 미전도종족은 11,000-12,000개이고 중국의 종족집단은 약 900개이다.³⁵⁾

인종언어학적인 정의를 사용해서 종족을 구분할 경우 그 수자의 파악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사회학적인 정의를 사용할 경우 그 수자를 제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종족통계를 다루는 자들은 인종언어학적인 정의를 선호한다. 종족입양운동을 위해서 입양을 필요로 하는 미전도종

34) AAP, op. cit., p2-4

35) Ibid.

족의 수자를 확정지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이러한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미전도종족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자 할 때 종족 개념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미전도종족인 쭈양족의 인구는 대략 1,600만 가량이 된다. 이들은 주로 쭈양족 자치구에 살고 있지만 중국의 다른 성에 그리고 중국의 주요 도시에 흘어져 살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단일한 전략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종족내에서 다양한 종족집단을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종족집단에 적합한 사역전략이 필요하다.

사회학적인 정의에 의해 구분되는 종족집단은 그 문화적 차이 그리고 사회적 간격 때문에 서로 다른 접근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같은 종족이라도 공장 근로자들과 대학생 집단을 접근하는데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큰 규모의 종족 가운데는 보다 수용적인 하위 종족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 하위 종족집단의 특이한 생활양식과 독특한 문화는 그들만을 대상으로 한 교회개척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결국 종족은 협의의 정의로서 종족입양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며 종족집단은 광의의 정의로서 전략수립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다.³⁶⁾

4.3.종족 집단의 구분

World Christian Encyclopedia의 편집자이고 미국 남침례교 해외선교부 소속의 선교 연구가인 데이빗 바렛(David Barrett)과 국제선명회(World Vision International)의 연구원인 할리 쉬렉(Harley Schreck)은 그들의 공저에서 사람의 집단을 인종 언어학적인 종족과 사회학적으로 정의된 종족집단의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다.

36) Ibid., p.2-5.

4.3.1.인종언어학적인 종족(Ethnolinguistic peoples)

이러한 개념의 일차적인 범위는 여러 나라 안에서 발견되는 인종과 인종언어학적인 종족들에 해당한다. 즉, 종족이란 ‘공동의 언어, 같은 인종 그리고 두드러진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식이 있는 인구 집단’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종족들은 문화적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집단이며 전도의 최우선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4.3.2.사회학적으로 정의된 종족집단(Sociologically defined people groups)

이러한 구분의 범위는 사회경제적, 사회정치적, 사회지리적, 사회종교적이라는 등의 용어로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사회집단 전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종족집단은 주거, 계층, 직업, 국적, 여가, 여행, 사교단체, 사회, 산업화 등과 관련된다. 그래서 종족집단이란 ‘그들 스스로가 상호간에 공동의 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개인들의 상당히 큰 사회학적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바렛과 쉬렉은 이 종족집단을 세분화하여 사회언어적 집단, 사회지리적 집단, 사회정치적 집단, 사회종교적 집단, 사회교육적 집단, 사회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집단, 사회경제적으로 엘리트 집단, 사회의학적 집단, 사회적 일탈집단, 사회적 업적집단 등의 10가지를 열거하고 있다.³⁸⁾

4.4.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의 개념

‘미전도’라는 말은 ‘숨겨진’, ‘잊혀진’, ‘무시되어진’ 또는 ‘닿지 못한’의

37) 예수전도단, op. cit., p.7-8.

38) Ibid.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전도종족이란 ‘타문화권의 도움없이 자신의 종족 스스로가 복음화하기 위한 적절한 사람들이나 자원이 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없는 집단’을 말한다. 즉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서는 이 종족집단을 복음화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교인과 자원을 가진 크리스챤 공동체가 그 안에 하나도 없는 종족집단을 말한다. 또한 하나의 민족언어학 종족으로, 그들 가운데는 생명력이 있고 토착적인 교회운동이 전혀 없어,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갈만한 충분한 힘도, 자원도, 헌신도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선교학적인 측면에서는 각 종족당 기독교인이 5%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다미안 에프타이(Damian Efta)에 의하면 미전도종족은 ① 복음을 듣지 않았다. 복음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그들에게 선포된 적이 없다. ② 복음에 응답한 적이 없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즉 진리임을 믿고 있지 않다. ③ 교회가 없다. 신자들은 예배, 가르침, 그리고 전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지 않으며, 교회 운동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다. ④ 그들의 모국어로된 성경이 없다. 문화적으로 수용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 시청각 자료들로 완비되지 못했다. 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지 못한 집단으로 규정한다. 성경 보급에 대한 실제적 혹은 법적 제한이 있다. 문맹인이 이 종족의 많은 페센트를 차지한다.³⁹⁾

39) Damian Efta, "Who are the Unreached?",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January 1994, p.29.

제 5장 미전도 종족의 위치와 특징

5.1. 미전도종족의 현황

미전도종족에 대한 토론의 핵심은 미전도종족이 과연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전도종족의 개념에 대해서 조차 오랫동안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보는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95 세계선교대회 이후에 그 의견을 좁혀 가시화된 목표 설정을 갖게 되었다.

패트릭 존스톤(Patrick Johnstone)은 12,000여개의 종족설을 말한다. 언어인종학적으로 구분하여 11,874종족이라고 하는데 World A(복음화되지 않았거나 복음을 접하지 않은 지역, 인구의 50% 미만이 복음화된 지역)에 3,915종족이 있고, World B(복음화된 세계내에 있는 비신자들, 상당한 부분의 비신자와 그 문화 내에 상당한 기독교회를 지니고 있는 지역)에 2,456종족이 있으며, World C(기독교화된 지역, 6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지역)에 5,412종족이 있다고 한다.⁴⁰⁾

GMI(Global Mapping International)의 밥 웨이마이어도 11,600개의 종족의 존재를 주장해서 존스톤과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⁴¹⁾

랄프 원터 박사는 사회적인 요소들로 더욱 세분하여 24,000개의 종족을 주장한다. 이중 13,000은 전도된 종족이고 11,000종족이 미전도종족으로 남아 있다고 보았다.⁴²⁾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90년 런던에서 열렸던 '미전도종족 입양

40) AAP, op. cit., p.1-5.

41) 예수전도단, op. cit., p.9.

42) AAP, p.1-5.

자문회의(Adapt-A-People Consultaintion)’에서 12,000개 종족설로 절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원터는 자신과 존스톤 등의 견해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용어를 더 세분화해서 쓰고 있는데 자신이 12,000개라고 주장하는 미전도 종족집단에 대해서는 ‘소종족’(‘minipeople’: ‘minority’라는 말과는 다름.)이라는 용어를, 그리고 존스톤 등이 3,000개라고 주장하는 미전도종족은 ‘소수종족’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종족군 (clusters)’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복잡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세부적으로 보면 12,000개이며, 큰 단위로 단순하게 보면 3,000개라는 것이다.⁴³⁾

미국세계선교센타(USCWM-랄프 원터박사 원장)의 미전도종족 입양 운동 자료에서는 12,000종족을 무슬림 종족이 4,000개, 부족이 3,000개, 힌두교 종족이 2,000개, 중국의 종족이 1,000개, 불교 종족이 1,000개, 기타 1,000개종족으로 발표하였는데, 현재 미전도종족의 수는 11,000에서 12,000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프랭크 갈렙 얀센(Frank Kaleb Jansen)은 A church for every people(한국명-세계미전도종족의 현황과 도전)에서 약 12,000 이상의 종족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에서도 미전도종족을 위한 선교 단체나 연구자들은 미전도종족의 수를 총 12,000에 플러스, 마이너스 200에 동의하고 있다.⁴⁴⁾

5.2. 미전도 종족의 특징

미전도종족은 대부분 하나의 종교가 이들을 정신적으로 묶어주는 때

43) 예수전도단, p.9.

44) AAP, p.1-5.

의 역할을 한다. 이 종교들은 대부분 물활론(Animism)이 주류를 이루어 폐쇄성이 강하고 보수적이다. 특히 이들 미전도종족은 회교권에 약 4천 여개, 힌두교의 인도에 약 3천여개 이상이나 된다. 그 외에는 불교 문화권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정령숭배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단체 WEC(Worldwide Evangelization Center)에서는 미전도종족을 2,130개의 17억 5천만으로 보고, 이중 1,196개가 아시아에, 673개가 아프리카에, 176개가 구라파에, 73개가 아메리카에, 남미와 북미에 11개가 태평양 지역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종교로 결집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다. 결국 미전도종족의 선교는 종교 전쟁 혹은 영적 대결(Power Encounter)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로 미전도종족들은 아직도 문명사회에서 소외되었거나와 혈연과 지연의 부족사회가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개인의 결정은 어려운 지역이 많음으로 서구적 개인전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이점에서 미전도종족 선교전략에 있어서 집단주의라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개종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결정권을 가진 추장이나 공동체의 장을 우선적으로 전도해야 한다. 과거 독일 선교는 이러한 것을 이미 실시하였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의 바atak족은 이러한 집단 개종의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그리고 상당수 미전도종족은 문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길고 어려운 설교나 교리보다는 그림이나 이야기나 상징을 통한 전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⁴⁵⁾

5.3. 미전도 종족의 위치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족속들은 사각의 청모양으로 생긴 지역에 살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이 지역은 전통적

45) 기독교보, 1995년 11월 25일자(271호), p.4.

으로 ‘저항적인 지역’(resistant belt)이라고 불리어 왔다. 이 지역이 갖는 위도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곳을 ‘10/40창’이라고 할 수 있다. 10/40창은 매우 중요한 현실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 현실들은 역사적 성서적 현실, 복음화되지 않은 민족과 국가들, 이슬람 등 3개의 주요 종교 집단, 빈곤층, 열악한 생활, 사탄의 강한 세력 등이다.

1989년의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로잔대회에서 루이스 부시는 ‘대부분의 미전도 족속이 서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걸쳐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선교의 노력을 이 지역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곳에의 집중이 다른 지역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이 마지막 10년에 10/40창 지역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순종하여 AD2000년까지 복음을 미전도 지역에 증거하여 그 곳에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 계속해서 그 민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10/40창인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⁴⁶⁾

왜 현신된 기독교인들이 10/40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첫째는, 역사적, 성경적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낙원을 지키고 다스리며 정복해야 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다. 그리고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이곳에서 전개된다.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악의 상징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각 민족과 방언으로 갈리게 하셨다. 그리고 고대사의 중요한 역사가 10/40창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사역하셨으며 십자가에

46) 신평로교회 선교국, 교회와 미전도족속 선교 (부산:미전도서출판,1993), p.15.

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사실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까지만해도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10/40창 지역에 국한되었다. 10/40창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본다면 기독교인들은 이 지역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⁴⁷⁾

둘째는, 이지역에 대부분의 미복음화된 부족과 국가들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10/40창에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지역이 전 세계의 토지면적의 1/3에 해당되지만 인구는 2/3가 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 되지 않은 55개국을 포개보면 10/40창과의 상당한 일치를 볼 수 있다. 통계상으로도 55개국의 가장 미복음화된 국가의 30억 인구 중 97%가 10/40창에 살고 있다. 결국 이 지역에 미전도족속을 복음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역이 남겨져 있다.⁴⁸⁾

셋째는, 이곳에 가장 강력한 이슬람 세력이 있다. 뿐만아니라 힌두교와 불교까지 이곳에 분포되어 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거의 이슬람 국가들이다. 그리고 10/40창을 좌우로 살펴보면 3개의 종교를 발견하게 된다. 첫번째는 이슬람들로 이 지역에 7억4백만 즉 이 지역 인구의 22%가 이슬람을 믿는다. 힌두교는 7억1천7백만으로 23%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5%에 해당되는 1억5천3백만의 불교가 있다. 현재 이슬람 인구의 99%가 빈민들이고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서구의 빛을 지고 있다. 이슬람 뿐만아니라 힌두와 불교도 대부분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결국 세계의 빈민 중에서도 극빈민층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⁴⁹⁾

네번째는, 세계의 빈민층의 거의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다. 연간 개인당 국민소득이 \$5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80%가 10/40창에 산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연간 국민 소득 \$500이하인

47) Ibid, p.17.

48) Ibid 49) Ibid

49) Ibid, p.18.

데 이 중 24억이 10/40창에 산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는 반대로 전 선교사의 8%만이 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세계 50개의 가난한 나라와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국가 사이에는 중요한 일치점을 볼 수 있다. 79%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비복음화된 국가에 살고 있다. 그리고 10/40창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복음화 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의 99%, 약 23억의 인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나 단 6%의 선교사만이 전 세계 인구의 44%에 해당되는 이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 99%가 이슬람과 힌두 국가에 살고 있다.⁵⁰⁾

다섯번째는, 이 지역에 사탄의 강력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고통을 받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부터도 소외되었다. 우리는 10/40창을 볼 때 사탄이 강력한 진을 형성하여 기독교의 침투를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40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준비를 하여야만 한다.⁵¹⁾

제 6장 지역교회의 미전도종족 입양선교

6.1. 미전도종족의 입양선교의 필요성

시대적인 움직임이 종래의 접근방법으로는 복음전파가 한계에 부딪치

50) Ibid, p.19.

51) Ibid, p.20.

게 되었다. 이제 보다 새로운 시각의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미복음화된 지역을 좀더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화하기 위한 연합적인 운동이 필요로하는 시대가 되었다.

6.1.1. 변화에 대응하는 선교전략

종족개념의 선교가 단지 최근에 나온 것이거나 또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선교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도 발표되었고 여러 선교학자들도 마지막 시대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 적절한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미전도종족 선교는 서구에서는 중간평가까지 이루어진 상태로 한국교회에 이러한 개념이 도입되고 선교를 전략적으로 세우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가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를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미전도종족입양선교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이정표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⁵²⁾

6.1.2. 교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선교

지금까지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선교사의 파송, 관련 선교단체의 요청에 의한 선교사의 후원,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대회, 선교여행, 선교사를 위한 기도 등이었다.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목회자의 마인드나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이 대부분 이므로 후원하는 선교사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개개인과의 관계는 특별히 관심이 없는 한 남의 일같이 여기게 되

52) AAP, op. cit, p.16-3.

며, 기도를 한다고 해도 구름 위의 기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교현금은 내지만 선교가 나의 일이리라는 애착감보다는 막연한 책임감뿐으로 직접적이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교인 한사람에게는 감동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가 커질수록 거리감이 생기며, ‘선교는 소수들만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미전도종족 입양선교는 이러한 면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사역은 시작에서부터 이루어질 때까지 교인 전체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기쁨이 있다. 또한 이 사역은 교회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와 축적된 자원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28:19)’라는 하나님이 주신 지상최대의 명령을 받았으며,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⁵³⁾

6.2 미전도종족 입양선교

6.2.1. 종족입양(Adopt-A-People)이란

미국의 선교 지도자들이 일으킨 선교운동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1,000여개의 미전도종족들을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이 하나씩 맡아서 그 종족 가운데 자립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책임지고 섬기자는 운동이다. 이 개념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어른이 될때까지 양육한다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서, 미전도종족의 아이를 데려와서 교회가 입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것은 아이를 키워내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 더 크고 의미있는 선교사역임을 기억해야 한다. 종족입양의 의미를 정리해 본다면 하나의 미전도종족을 입양한다는 것

53) Ibid.

은 교회가 하나의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복음이 들어간 후에도 현지인에 의해 현지교회가 자생능력이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기도, 재정적인 후원과 인적 파송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⁵⁴⁾

6.2.2. 미전도종족 입양선교의 목표

이 운동은 모든 민족에게 신속하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민족의 자국내에 자립적인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한 명의 선교사만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족안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총체적인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도와 시간과 재정과 인적자원이 요구되는 선교인 것이다. 즉 인내가 요구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며,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선교는 교회가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담당해야 하는 선교인 것이다.⁵⁵⁾

6.3 지역교회와 미전도종족 입양선교

6.3.1. 지역교회 선교 취약점

한국교회가 갖는 선교에 있어서의 취약점은 전략의 부재임을 들 수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교회가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선교사를 위한 기

54) Ibid, p16-4

55) Ibid.

도와 재정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별히 선교를 위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ACMC(Advanced Church Missions Commitment)가 지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다섯가지로 나누고 다시 세분하여 열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리더쉽(목회자, 선교위원), 전략(장단기 선교목표, 선교정책), 동기부여(선교 교육, 비전제시), 선교사 파송(선교지원자 양육, 선교사 지원), 선교재정확보(개인선교헌금, 교회선교재정)이다. 이러한 단계에 비추어 살펴볼 때 한국교회가 걸리는 부분이 역시 전략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 공중기도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나 가끔 듣는 선교사역 보고는 선교 참여도를 약화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교회가 진정으로 선교하고 있음을 전교인이 느끼게 하는 것이 미전도종족 입양인 것이다. 미전도종족 입양에 대한 참여는 교회에 대해 계속적인 선교 동기를 불어 넣어 선교사역에 활기를 불어 넣게 될 것이다.⁵⁶⁾

6.3.2. 왜 지역교회가 종족입양선교운동을 해야하는가?

첫번째, 성경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미전도종족 입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과 하나님 왕국의 궁극적인 완성을 이를 수 있는 방법이며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의 지상 과제는 성경의 명령이며, 분명히 이루어질 과제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24:14).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1920)’,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계5:9)... 모든 족속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계시록을 통해 종족의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믿는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루어져야 할 마지막 과제인 것이다. 이것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미전도종족 입양선교운동인 것이다.

두번째, 가장 효율적인 선교 전략이기 때문이다. 종족 중심의 선교는 세계 선교를 한 눈에 파악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최종 완성 시기를 예측하여 진행할 수 있다.

세번째, 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선교이기 때문이다.⁵⁷⁾

6.4. 미전도종족 입양선교의 장점

첫번째, 확실한 선교 목적을 설정할 수 있다. 현재 복음에서 소외된 지역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복음이 시급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점검하여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파악된 지역에 대한 기도의 시작과 함께 지역 연구를 실시하고 그 지역에 합당한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이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역에 합당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오랫동안 연구된 결과로 세운 선교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

두번째, 효과적인 협력선교 운동이 가능하게 된다. 종족입양운동은 총체적인 선교사역이다. 미전도종족 입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설립이다. 그러나 한 종족이 복음화되어 효과적으로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맞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데, 여기에는 지역 개발, 의료, 위생, 문맹퇴치, 기술지원, 성경번역, 구제 등이 포함된다고

56) Ibid.

57) Ibid., p.16-4-16-5.

본다. 그러므로 교회와 타기관과의 협력을 이루어 가야 한다. 교회가 전부 감당할 수 있다. 또는 선교단체만이 가능하다라는 틀을 벗어나서 같이 2인 3인의 자세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이다.

세번째, 선교자원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입양선교는 총체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개척을 위한 교역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종족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전문인 선교사(평신도)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지닌 선교 현신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그들을 미전도종족에 방문하게 하여 양질의 선교사로 양육할 수 있다.

네번째, 복음화 사역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전세계의 미전도종족의 상태를 정리한 현황판을 보면서 복음화되고 있는 지역을 체크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선교사들의 집중된 상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공격해 갈 수 있는가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음화 사역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섯번째, 연구하는 선교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선교는 선교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그러나 미전도종족선교는 선교지 연구가 수반된다. 선교할 종족에 대한 연구를 하여 종족에게 맞는 교회나 복음전도에 대한 예견을 할 수 있게 된다. 상대를 알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 가야 할 지역을 연구하고 종족을 실제로 정탐해 보면서 정확하게 상대를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영적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여섯번째, 지역교회가 선교의 최종적인 주체가 된다. 한 종족안에 자생적인 교회가 설립될 때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종족을 도우며, 교회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⁵⁸⁾

58) Ibid, p.16-5-16-6.

6.5. 지역교회의 미전도종족 입양선교전략

6.5.1. 연합사역의 추구

하나의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미전도종족’을 중심으로해서 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서로간의 신뢰와 함께 사역하는 기관끼리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하나의 미전도종족은 복음화가 되는 것이다.

6.5.2. 입양사역을 위한 준비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교회내의 반드시 이 일을 위한 중간 조정자 혹은 현신자가 있어야 한다. 그는 정보 수집에서부터 교회내의 홍보, 그리고 교회 자체내의 정탐여행 준비, 협력기관과의 연락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많이 있다.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을 점검하고, 그 비전에 맞는 종족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그 종족에 대한 자료 수집과 아울러 교회안에 분위기가 익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지도자들의 합일된 의견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는가 살펴봐야 한다. 교인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도록 하는 지속적인 교육 등을 계획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입양선교에 대한 통합된 철학과 장기 계획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⁵⁹⁾

6.5.3. 지역교회가 입양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

59) Ibid.

1.종족규모를 살펴본다. 입양하기를 원하는 미전도종족의 인구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어떤 종족들은 단지 몇백명의 수자 밖에 안되지만 어떤 종족은 수 백만이다. 교회 또는 단체가 종족의 숫자가 최소한 어느 정도있는 것이 좋은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어떤 종교의 종족인가. 입양하기를 원하는 종족이 회교, 불교, 정령숭배, 혹은 힌두교중 어느 종교권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특별히 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종교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부담감을 주시는 종교권이 어디인가 등 속해 있는 교회나 단체의 비전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3.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를 구소련연방 중의 하나 혹은 멕시코, 미국, 유럽중에서 어떤 종족을 선택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10/40창 지역국가 중에서 어느 종족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미전도종족이 있는 지역이 입양 결정 과정에 있어서 당신의 교회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가도 검토하는 것이 좋다.

4.사용 언어는 무엇인가?. 당신이 선택할 때 그 종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고려할 것인가? 어느 교회는 그 종족이 만다린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종족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들중 몇몇이 그 언어를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그 종족에게 접근할 방법이 무엇인가. 많은 나라들이 선교사가 그들 국경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족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종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종족은 비지니스에 근거해서만 접촉이 가능한 종족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할 때 교인들 중에 쉽게 그곳에 갈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도 검토하면 도움이 된다.

6.기존의 선교 자원을 활용한다. 교회가 현재 지원하는 선교사 혹은 전문인 선교사 중에 미전도종족에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는가? 그

렇다면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미 당신이 선교사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이 한 종족입양의 개념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 관계성을 토대로 시작하되 만약 교회가 미전도종족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와의 관계가 없다면 교회가 관련되어 있는 단체의 어느 하나라도 미전도종족에 관련한 선교사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교회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관계를 토대로 하여 시작하려고 시도해 보면 된다.

7.교회자원의 활용여부를 점검해 본다. 미전도종족과 어떤 자연스런 비지니스 관계가 있는가? 예를들어서 당신의 교회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정유회사에 고용되어 있다면 그들이 미전도종족이 있는 중동에서 작업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교인중에서 의료계 종사자가 있다면 그들은 직업을 이용해 해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한 교회에서 목사의 동생이 미전도종족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 교회는 그 종족을 입양하기로 했다.

8.교회 지도자들이 관심 갖는 지역을 먼저 생각한다. 목사님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특정 종족이나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미전도종족을 입양할 가능성을 타진해 보라. 예를 들면 지역교회 목사가 회교국과 라틴아메리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두 매개 변수들을 기초해서 미전도종족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지도자의 관심이 없으면 입양선교를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9.타교회와의 협력. 지역교회가 아무도 입양한 적이 없는 종족을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입양한 종족을 택해서 그들과 연합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당신의 교회가 아무도 입양한 적이 없는 종족을 원하다면 그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해 책임질 것을 기꺼이 맹세하는가? 랄프 윌터박사의 통계에 따르면 740여개(94통계)의 교회들이 하나의 미전도종족씩만 감당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한다.

10.가까이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활용한다. 한국과 그 밖의 다른 곳에서 동시에 사역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속한 종족을 택할 수가 있다.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인들이 있다. 한 교회가 이들을 입양하려고 할 때 미얀마와 이곳에서 동시에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

11.지역교회와 선교단체와의 협력. 미전도종족에 관여하기 시작할 때 지역교회나 선교 조직과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독립되어 있는 선교단체 와 교단 선교부를 통해 교회가 이러한 형태의 관계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풍부하다. 지역교회자체, 선교단체 혹은 동역자와의 동역자의식 이 함축하는 의미를 느낄 수 있다.

12.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가. 교인들에게 미전도종족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일리고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교인들에게 종족에 대한 홍보가 용이하도록 자료 이용이 가능한 종족을 입양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너무나 자료가 없는 지역은 교회내에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힘이 들 수가 있다. 교회가 택하려고 하는 종족을 이미 선교하고 있는 단체나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가 유익하고 필요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디어를 놓고 그들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한다.⁶⁰⁾

6.5.4.지역교회의 미전도종족 입양선교방법

1.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 한 종족의 입양은 기도로 시작되어 기도로 끝나는 사역이다. 입양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압양 사역을 도우시도록, 또한 입양한 종족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이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60) Ibid, p.16-8-16-10.

2.정보를 수집한다. 입양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전도종족에 관한 세미나 자료나 홍보자료를 모으고, 입양하려고 하는 종족에 관한 정보를 꼭넓게 수집한다. 선교단체나 한국미전도종족 입양운동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담당목사와 의논한다. 지역교회에서 입양 사역을 시작하려면 담임목사와 의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임목사가 종족 입양에 대해 이해하고 찬성하는가를 점검한다.

4.선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선교위원회에서 입양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질문해야 하는 것은 누가 이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이다. 또한 종족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들을 세워야 한다.

5.교회의 지도자들과 전략회의를 진행한다. 교회의 지도자(당회장과 장로들)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종족 입양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한다.

6.선교단체를 접촉한다.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선교부의 선교 정책을 살펴보고, 교단 선교부가 중점으로 하는 지역의 종족목록이 있는지 물어본다. 또한 교회가 파송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가 미전도종족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협력하기를 원하는 미전도종족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는 선교단체를 찾아 본다.

7.종족선택을 위해 기도한다. 교단 선교부나, 선교단체가 추천한 몇 개의 종족들을 놓고 하나님의 어떤 종족을 입양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한다.

8.종족을 선택한다. 종족 선택을 위한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 과정을 통해 걸러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 선택하는 일을 마친 후 입양을 위한 최선의 후보 종족은 어느 종족인가? 그리고 그 종족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일단 종족이 결정되면 그 종족에 대한 리서치를 계속해야 한다.

9.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한다. 입양의 목표는 종족내의 사람들을

완전히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 개척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그 종족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 종족 가운데로 파송되는 타문화권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종족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힘을 끓어 주시도록 간구하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10. 선교단체의 정보를 구한다. 협력하기로 한 선교단체와 계속 접촉하면서 입양에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나 종족에 관한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속해서 정보를 구하도록 한다.

11. 목표를 설정한다. 입양을 결정한 후에는 해마다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 어떻게 전교인들을 기도하도록 하는가?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세우도록 한다. 또한 종족을 정탐하는 여행들을 계획한다. 또 언제 입양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하는가 등등 목표와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12. 종족 프로파일을 작성한다. 입양 종족에 대한 철저히 연구된 프로파일을 갖도록 하며, 계속해서 프로파일을 개선하도록 정탐을 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파일은 성도들을 교육하는데 도움이 된다.

13. 교인들을 교육한다. 교육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 성경공부시간, 각종 모임, 주일학교 등을 활용하는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 교인들을 교육하기 위해 교단선교부나,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의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14. 필요한 재정을 모금한다. 입양 선교를 위한 재정을 모아나갈 계획을 세운다. 당장 종족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족 선교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별도 재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족으로 복음을 들고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그때 그때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또한 그 지역을 계속해서 정탐하고 연구하는 일에도 재정이 필요하고, 교회안에 현신된 젊은 선교 자원들을 정기적으로 종족안으로 보내는 일에도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15. 다른 기관과 연합한다. 입양사역을 담당하는 선교단체나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하면서, 입양사역의 진행들을 점검해 나간다.

16. 입양현신예배를 드린다.

17. 교인들을 종족에게 보낸다. 교회 전체 성도가 입양한 종족에 대한 사역에 계속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입양한 종족을 보게 하는 것이다. 연간 정기적인 방문 계획들을 세워서 담임목사와 교회 지도자들, 장년들, 청년들을 방문하게 하여 이 사역의 관심을 고조시켜 나간다.

18.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갖는다. 입양한 종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갖으면서 입양한 종족안에 교회 개척 사역의 진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쁨을 나누도록 한다.⁶¹⁾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믿는 우리가 평생 주님앞에 갈 때까지 지켜야 할 우리의 할일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족속으로 가는 일’은 믿는자는 누구나가 해야 할 일이며, 또 믿는자들의 유기적인 연합체인 교회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절대절명의 주님의 명령인 것이다. 그러한 명령을 지켜온 신실한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 오늘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그 족속으로 나갈 때 모든 족속은 주님앞에 서 있을 것이다(계7:9).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이다.

제 7장 미전도 종족 입양 선교 활성화를 위한 교회, 선교단체, 선교사의 협력방안

61) Ibid, p.16-6-16-8.

7.1.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초교파적 협력 방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딤후2:3)인 우리 모두는 함께 단결하여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미전도종족은 아직도 흑암의 세력으로 가득찬 영적 전쟁터이다. 우리 모두는 함께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초교파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초교파적으로 협력할 일이다.

1.1-1-1 기도운동이다. 선교에 있어서 기도의 전략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한다. 각(1)성도가 미전도종족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운동을 매일 오후 1시에 1분간씩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루에 1200만분(20만 시간)을 도고로 바치게 된다.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기독교 라디오,TV,신문이나 기도팜플렛을 통해서 기도한다.(예 G.T.)

2.홍보와 교육을 위한 미전도종족 입양운동 지부를 각 지방에 설치한다. ‘미전도종족 입양’에 대한 개념이 거의 많은 교회지도자들에게 생소하다. 각교회 목회자나 선교관계 지도자들의 이해없이 본 운동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전략적인 지역마다 홍보와 교육을 위한 미전도종족 입양운동 지부를 설치한다. 그래서 그 입양운동 지부는 그 지역에 홍보와 교육을 맡는다.

3.각 지역별 미전도종족 입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각 교회에 이 중요한 운동을 홍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부 중심으로 계속 세미나를 재미나게 개최해야 한다.

4.매스 미디어(라디오,TV,기독도서,신문,영화,음악,체육 기타)를 잘 이용하여 각 지역에 홍보와 교육을 하여 동시 효과를 내게 한다. 그리고 국제 매스 미디어 Net-Work을 이용하여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의 전파를 보낸다. 이를 위해서는 초교파적으로 매스 미디어 전파 미전도종족 선교후

7.4.미전도종족 입양 활성화를 위한 선교사의 역할

일선 선교사들은 보병과 같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파괴하고 살상하는 파괴적 전쟁이므로 현대전에는 보병 없이도 다른 무기로 쳐부 수고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선교는 살리는 영적전쟁이므로 첨보병,위생병,병참지원병,포병,공병,보병같은 일선 선교사들의 역할은 너무나 큰 것이다.

첫번째,미전도종족입양을 위한 기도는 선교사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두번째,각 선교지역의 일선 선교사들끼리 그리고 각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출 수 있는 Net-Work을 형성해야 한다.

세번째,미전도종족입양운동과 종족 리서치 방법에 대해서 숙지해야 한다.

네번째,모든 미전도종족내에 교회개척 운동을 벌여야 한다.

다섯번째,미전도종족의 영적 지도자들을 육성한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리더쉽을 발휘하게 한다.⁶⁴⁾

미전도종족 입양선교에 있어서 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는 협력해서 사역을 해야한다. 그리고 교회와 선교사 그리고 선교단체와의 관계는 대립이 아니다. 상호 보완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선교의 근거는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후에 내린 선교의 대명령에 확고히 서 있기 때문이다.

64) 강승삼, p4-5.

65) 강승삼, p6.

결 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인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놓이게 된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단번에 성취되어지고 또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하여 지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날, 즉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구원사역은 완전히 성취되어 질 것이다.

이 날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선교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 선교사역의 목적과 동기는 처음부터 지금 까지 변함이 없지만 그 방법은 시대적, 정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걸어 다니며 전하였지만 지금은 차, 비행기, 컴퓨터등 첨단 장비들을 사용하여 전하는 것이 효과적 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등을 고려할 때 과거와 달리 현재에 가장 맞는 방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입양 선교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국가 단위의 개념으로서 선교지에 파송되어 선교하는 선교사

입양 선교보다 이제는 통신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정보화등으로 말리암아 더 이상 지난 날의 방법들은 효과적이지 못함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각 국가들은 종족들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때문에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일지라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며 생활 습관이 다르다. 이런 국가들을 상대로 선교할 때는 국가중심 보다는 종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전도 종족 입양 선교의 중요성은 지역교회의 선교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대부분 기존 교회들의 선교방법은 직접적 선교 활동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선교 방법을 취하고 있다. 선교단체나 이미 다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후원하는 차원의 선교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도움은 어느정도 줄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와 선교사가 하나되는 일은 극히 드물며 또한 선교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피상적이고 무관심적이다. 이러므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일 또한 계울리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입양선교의 장점은 지역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선교사역에 직접 동참하게되며 구체적인 선교사역에 동참함으로서 생동감있는 선교활동을 성도들과 함께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입양 선교는 성경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 19-20). 성경은 족속에 대한 개념과 함께 족속 복음화를 긍정적인 선교 목표로 보고 있다.

이와같은 선교방법은 21세기 선교의 흐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1세기의 주요한 선교활동의 특징은 제3세계 선교 세력의 등장과 전문인(평신도 포함)선교사 활동 시대의 도래 그리고 입양선교의 대수가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입양 선교는 중요하다.

입양 선교의 방법으로서 먼저 입양할 종족을 연구한다. 동시에 종족입양에 대한 전교인들에게 인식을 시킨다. 그후 입양 대상의 종족을 선정

한다. 선정한 종족들을 정탐여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보고한다. 그리고 선별대를 파송하여 선교활동의 거점을 확보한다. 또한 동시에 종족입양과 입양서약서를 작성해 함으로서 교인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 성공적인 입양선교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기금을 조성한 후 설정된 목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런 과정 속에 장기적 계획들이 수립되는 것이다.

지역교회는 먼저 교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입양에 대한 자료를 선교회보를 통해 계속 알린다. 이를 위해 보다 세밀한 현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함으로 종족입양 선교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도움을 받으며 또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의 연락을 통해 계속 알린다.

두 번째로 성도들을 위한 선교교육으로 선교세미나나 특강 등을 통해 전체교인들에게 선교교육을 실시하고 기도회나 선교 성경공부반 등을 통해 선교 교육을 실시한다.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의 현지 방문을 실시하며 청년, 대학생 중심으로 한 단기 선교여행을 실시한다.

네 번째로 입양하는 지역인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최대한 지원한다.

다섯 번째로 선교재정을 확보하여 선교사 파송과 후원, 현지 사역지원, 프로젝트 참여에 사용한다.

여섯 번째로 선교자원을 발굴하여 장, 단기 사역자로 양성한다.

일곱 번째로 기도를 통해 입양 선교에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입양운동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여 많은 교회나 개인, 단체가 참여하게 한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지역교회들은 많은 미전도종족이 복음화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들의 문화에 맞는, 그들의 토양에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교

회를 세울 때에 자생적 교회가되어 스스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교회일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선교방법이 미전도 종족 입양 선교전략이다.

◎ 참고 문헌

1. 번역서적

- Bavinck, J. H. (전호진 옮김), [선교학 개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9
- Camp, Bruce K. (한국 미전도종족 본부 역), [미전도종족 현황], 서울: 한국 미전도종족 입양운동 본부, 1995
- Camp, Bruce K. (한국 미전도종족 본부 역), [효과적인 미전도종족 선교], 서울: 한국 미전도종족 입양본부, 1995.
- James, Hastings Nichols (서영일 역), [History of Christianity],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Jansen, Frank Kaleb (한국 미전도종족 입양본부 역), [세계미전도 종족현황과 도전], 서울: 한국 미전도 입양본부, 1995.
- Kane, J. Herbert (백인숙 옮김),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4.
- Kane, J. Herbert (이재범 옮김),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4.
- Lane, Denis (도문갑 옮김), [선교사와 선교단체], 서울: 도서 출판 두란노, 1993.
- Lewis, Jonathan (김동화, 도문갑, 문상철, 민요섭, 백인숙, 이태웅 옮김), [열방을 향하여], 서울: 한국 해외 선교회, 1993.
- Robb, John D. (문상철 역), [초점! 종족집단별 접근 전략], 서울: 한국 해외선교회 출판부, 1993.

- Russell, Walt (한국 미전도 입양본부 역), [효과적인 미전도종족], 서울:한국 미전도 입양본부, 1995.
- Thomson, Robin (이득수 역), [세계 선교 출발], 서울:한국 기독학생회 출판부, 1994
- Winter, Ralph D. (한국 미전도 입양본부 역), [미전도 종족 상황보고], 서울:한국 미전도 입양본부 1995.

2. 국내 서적

- 김남식, [네비우스 선교방법], 서울:성광문화사, 1991.
- 김명혁,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서울:성광문화사, 1992.
- 신평로교회편, [교회와 미전도족속 선교], 부산:미진 출판사, 1993.
- 이태웅, [한국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한국 해외선교회 출판부, 1994
- 조동진, [민족과 종교], 서울:도서출판 별, 1991.
- 한국해외 선교회 전문인 협력기구,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 서울:HOPE, 1994.
- 한국해외 선교회편(문상철 역), [성공적인 미전도종족 입양 프로그램 운영지침], 서울:한국해외 선교회 출판부, 1994.

3. 간행물

- AAP, “미전도종족의 입양운동은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한국 미전도종족 입양본부, 1994.
- AAP, “미전도종족 학술세미나”, 1995년 2월 7일.
- AAP, “예수님의 재림전에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1995.
- HOPE,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 서울:전문인 협력기구, 1994.
- 목회와 신학편집, “목회와 신학”, 서울:도서출판 두란노, 1990.
- 미션월드, 서울:아세아 선교회, 1992.

- 한국 미전도종족 입양본부, “세계미전도종족의 현황과 도전”, 서울:한국 세계선교협의회, 기독교 21세기 운동본부, 헛불선교센타 협력 발행, 1994.
- 한국 선교정보연구센타, “현대선교”, 서울:한국 해외선교회 출판부, 1993.

4. 논문

- 서원만, 바울의 선교 전략과 한국교회에의 적용(고신대학 신학대학원), 1990.